



연중일과 독립 기념일
©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9 년 4 월 30 일

어제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키려 싸우다가, 혹은 테러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은 이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독립 기념일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 두 기념일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회복, 그리고 예슈아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는 깊고 신비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연관성은 성경적이고 영적이며,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지 않아야 할 것은, 각 성도들이 예슈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각 성도의 거듭남은 예슈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확장이자 연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유랑과 회복도 예슈아의 죽으심과 부활의 확장 및 연장입니다. 예슈아께서 세상의 구원자시기에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슈아께서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에, 저희 민족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죽음과 부활의 패턴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 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메시아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신약의 증거에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눅 24:46). 예슈아께서 2일 후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2,000년의 유랑 후 회복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에스겔의 마른 뼈 예언이 죽은 자의 부활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모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메시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면 그 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메시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그 분께서 왕이 되셔야 할 민족에겐 회복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요 18:37; 19:19).

이 패턴은 성경 전체에 반복됩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백성 전체가 고난 받았습니다 (삼하 24:17). 예수아께서 출생 직후 이집트에 내려가셔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성취입니다 (마 2:15, 호 11:1). 이스라엘 땅에 대한 공격들은 메시아께서 받으신 채찍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시 129:3).

이스라엘의 고난은 예수아의 십자가에 비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연관성을 유명한 유대인 화가 마르끄 샤갈이 포착하여 그의 걸작 하얀 십자가 (1938), 짐착 (1943), 노란 십자가 (1943), 출애굽기 (1953-1966), 회색 십자가 (1970) 등에 표현했습니다.

랍비들은 이사야 53 장이 예수아께 대한 것이 아닌 유대 민족에 대한 것이라는 전통을 세우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맞을 수 없는 것은, 8절에서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끊어지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의 고난 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유대 민족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사야의 예언들은 절반씩 예수아께 대한 것들 (42:1, 42:19, 49:3-7, 52:13, 53:11)과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 (41:8-9, 43:10, 44:1-2, 44:21, 48:20)로 나뉘어 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이름이 절반은 예수아를, 절반은 유대 민족을 가리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명료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한 개인 (야곱)과 민족 전체 (야곱의 후손들)를 모두 이룬다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다른 이들을 대신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으로 속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아께서 친히 감당하신 역할입니다. 허나 또한 그 분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수아의 “고난을 채우도록” (골 1:24),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고난 받도록 (고후 1:5)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민족들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신도, 열방도 모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때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거기에 거룩한 원인이 있어 다른 이들에게 구속적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벧전 4:1, 13, 15-17).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고난의 대부분은 단순히 저희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의 구속을 위해 중보적 행위로 감당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고난은 십자가와 유사함을 봅니다. 예수아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을 뿐 아니라 공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계 열국의 목전에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계의 나라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각국은 그 공격에 가담하거나, 중립을 유지하거나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거나 극한 심판을 받게 되는 선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개인들에게 경계선이 되듯, 이스라엘에 대한 종말 전쟁 또한 모든 나라들에 대한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 서느냐, 그에 대항하느냐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전체로서의 나라들은 이 시험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 안에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